



<3> 국무총리실

역대 총리 光州·全南 1명도 없어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직무 보좌와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정책 조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자체 조직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이뤄져 있다.

지난 1973년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로 출발한 국무조정실은 지난 1998년 2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능을 강화, 국무조정실로 재편됐으며 직급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또한, 참여정부에서는 2개의 차관급 자리도 신설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과 국정 전반의 통합성 유지 및 정책 조정, 국정 현안 과제 종합 추진, 정부 업무 평가 및 국정 과제 관리,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총리는 박정희 정권 이후 군사정부 때는 '얼굴마담' '대통령총리' 등으로 불리면서 실권없는 상징적 인물들을 중용하거나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교체 인사를 단행해 왔으나 막강 실세총리였던 국민의 정부 당시 김종필 총리에 이어, 참여정부 들어 그 위상이 완전히 변했다.

특히,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를 도입한 참여정부에서는 총리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려가면서 각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총리



이한기씨(담양) 총리서리 유일...본적은 전북
비서실장은 5공~문민정부 이효계씨 유일
국조실 고위급 7명뿐...참여정부 이후 증가세

의 경우는 실제 총리로서 사실상 부통령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선 지난 영남 정권에서의 행정조정실장(국무조정실장)은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제 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13명의 행정조정실장 가운데 영남 출신은 6명으로 집계된 반면 호남 출신은 3명(손수익, 이기호, 강봉균)에 그쳤다.

장관급으로 위상이 강화된 국민의 정부에서는 총 7명의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는데 호남 출신은 나승포 씨가 유일한 반면, 영남 출신은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동진 정책을 편 것도 원인이지만 국무총리실의 인맥이 영남권과 충청권에 치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가 들어선 참여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의 권한은 한층 더 강화됐으며 호남 출신 인사들의 중용도 이어졌다.

총 5명의 국무조정실장 가운데 호남 출신은 3명(임상규, 조영택, 한덕수)으로 나타났으며 영남 출신이 2명(이영탁, 김영주)으로 집계됐다.

7명의 차관급 자리에는 영남 출신이 4명인 반면 호남 출신은 2명(조영택, 박종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무조정실의 고위 공무원단 33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7명에 불과, 타 부처에 비해 인맥 구조가 비교적 허약한 편으로 평가된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노병인 일반행정 심의관, 심오택 정책홍보 심의관, 장동환 한일수교회담기획단 부단장, 민기 제주사무처 산업진흥관 등이다.

3급 부이사관으로는 전남 출신인 최기조 OECD 서울센터과장, 김재열 규제조정관실 건설교통과장 등 4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호남 출신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외형상 나타난 국무조정실의 호남 인맥은 약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정부 이후 나름대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자처 평가했다.

한편,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 보좌, 당정 협조 업무, 국무총리의 국정 자문, 국내외의 주요 정보 및 상황, 국무총리 국정 활동 홍보 및 연설문·담화문 작성 등의 업무를 담

당한다. 그러나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본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반영하듯 국무총리 비서실은 호남 인맥이 취약한 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12명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가운데 호남 출신은 이효계씨가 유일했다. 반면 영남 출신 4명, 충청 출신 4명, 서울 출신 3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호남 인맥은 눈에 띄지 않았다. 5명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가운데 호남 출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참여정부에서는 호남 인맥이 부쩍 늘어났다. 5명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가운데 호남 출신은 3명(김성진, 탁병오, 김대근)으로 나타났다.

한편, 12명의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호남 출신은 김승호 정무기획비서관(전남)과 김형욱 민정수석비서관(전북)에 그쳤다.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정부2비서관을 맡은 바 있는 송선태씨는 "본질적으로 국무총리실은 영남 및 충청 인맥이 강하고 호남 인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며 "그러나 국무총리 비서실 고위직은 총리와 임기를 함께 하는 편인 데다 일반 행정직보다는 정부직이 많다는 점에서 딱히 지역 인맥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역대 국무총리 출신지역 살펴보니

34명 가운데 북한 본적 9명 서울 7 전북 4 부산·경남 4명

대한민국 출범 이후 국무총리 34명(4명은 두 번 역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본적 기준)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역대 총리 가운데 북한을 본적으로 둔 인물은 모두 9명(백두진, 정일권, 유창순, 노신영, 강영훈, 현승중, 정원식, 이영덕, 한명숙)으로 나타났고, 서울 7명(이범석, 변형태, 최두선, 김정렬, 이홍구, 이회창, 한덕수)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전북이 4명(고건, 황인성, 진의중, 김상협), 부산·경남이 4명(하정, 노재봉, 박태준, 김석수)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장면, 남덕우, 이한 등)과 충남(김종필, 이해찬, 이현재), 경북(장택상, 신현확, 이수성)이 본적인 총리는 각각 3명으로 집계됐다. 최후하 전 대통령은 강원도 출신의 유일한 총리였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민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인물은 장면(2대·7대), 백두진(4대·10대), 김종필(11대·31대), 고건(30대·35대) 등 4명이었다.

한편, 국무총리 서리나 권한대행은 말았으나 정치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한 인물은 8명(신성모·이윤영·백한성·박충훈·신병현·이한기·장상·장대환)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도 광주·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이한기 전 총리서리는 출신지가 담양이지만 전북 고창이 본적지라 광주·전남 출신으로 분류되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광주·전남을 본적으로 둔 인물이 그동안 국무총리직에 오르지 못했다"며 "영남정권에서는 차별을,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에서는 역차별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역임 나 승 포씨

“호남총리 없었으니 인맥 형성될 터 있다”

“국무총리실 인직 구조에서 호남 인맥이 약하다는 것은 정권의 지역적 기반 및 총리의 출신 지역에 따른 함수 관계로 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나승포씨는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영남 정권이 이어져 온 데다 그 동안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무총리가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의 호남 인맥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무총리실이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서 뚜렷한 지역 차별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총리가 많이 배출된 영남과 충청 인맥이 강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기능이 어느 정도 확립됐다는 나 전 실장은 “참여정부 들어서 책임총리제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국정 운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무총리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위 공직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별 논란에 대해 나 전 실장은 “그 동안 정권의 기반이 되는 지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정부의 기능과 효율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악영향을 끼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나 전 실장은 특히 “최근 모든 대선 후보들이 현재 선진화를 공약처럼 외치고 있는데 선진화를 이루려면 우선 모든 인사에 있어 '적재적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조언으로 “지역을 떠나서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다도해의 아름다운 휴식을 담은 호텔

예향 남도의 문화가 가득한 목포에서
최상의 호텔 서비스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웃음 충전소! 2007년 신나는 어린이날 꿈잔치

- 일 시 >> 2007년 5월 5일(토), 오후 5시 30분~
- 장 소 >> 호텔현대 1층 컨벤션홀
- 요 금 >> 어른 3만5천원, 어린이 2만5천원 (5세~초등학교)
- 프로그램 >> 페이스 페인팅, 캐릭터와 기념촬영, 가족화합의 신문지 뽀개기, 어린이 디스코 경연대회, 가족 골든벨 게임, 행운권 추첨 등
- 예 약 >> (061)463-2233, 469-5151-2
- 입금예약 >> 외환은행 630-005202-012 예금주: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표전화: 061-463-2233 / www.hyundaihotel.com